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8.4(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과 경공업이 각각 13.3%, 6.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8.3% 감소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28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각각 6.2%, 13.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3%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서울의 7월 평균 물가 상승률과 동일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한 63.4%로, 남자는 75.6%, 여자는 51.8%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498만7천명으로,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8%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6%p)는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확대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2,15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4% 감소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및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95.4%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증가한 반면 신규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0.9% 감소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2%p 증가함 - 7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0.7%)과 단독주택(0.3%)은 상승한 반면, 아파트(0.1%)는 보합을 나타냄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82조 1,187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4,930억 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5조 4,606억 원)보다 확대됨 ○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 부도업체 수 감소, 어음부도율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1,781개) 보다 43개(-2.4%) 감소한 1,738개임 - 7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3개) 보다 2개(-3.2%) 감소한 61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하고, 어음부도율은 0.01%로 지난 1월 이후 변동 없음 ○ KOSPI 지수 2,000p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KOSPI 지수는 국내 경기회복의 가시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 등에 힘입어 2,000p를 돌파함(7.25일, 2004.2p) ○ 장단기 금리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말 장 단기 금리차는 0.12%p로, 전월에 비하여 상당폭(-0.14%p) 축소됨 -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고, 콜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가 당당아 오르며 나타난 현상임

| 생 · 산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소폭 확대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

- 6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수출호조와 내수지표 개선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함
-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22.5%), 자동차(승용차·특장차, 6.0%), 기계장비(에어컨·굴착기, 5.3%) 등을 중심으로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4분기 산업생산도 7.0% 증가하여 전년동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소폭 확대

- 6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8.4(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8.3% 감소하여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영상음향 및 통상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인쇄출판, 기타기계 및 장비, 섬유제품 등에서는 감소함
-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12.0%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하여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무선통신중계기, 21.7%), 컴퓨터 및 사무기기(6.1%) 등이 증가한 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43.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8.1%), 기타기계 및 장비(주차기, -26.0%)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여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기성보통외의, 10.7%), 가죽·가방 및 신발(9.1%) 등이 증가한 반면 섬유제품(메리야스외의·자동차용카바, -23.1%), 음식료품(-21.9%), 인쇄출판(서적, -11.2%)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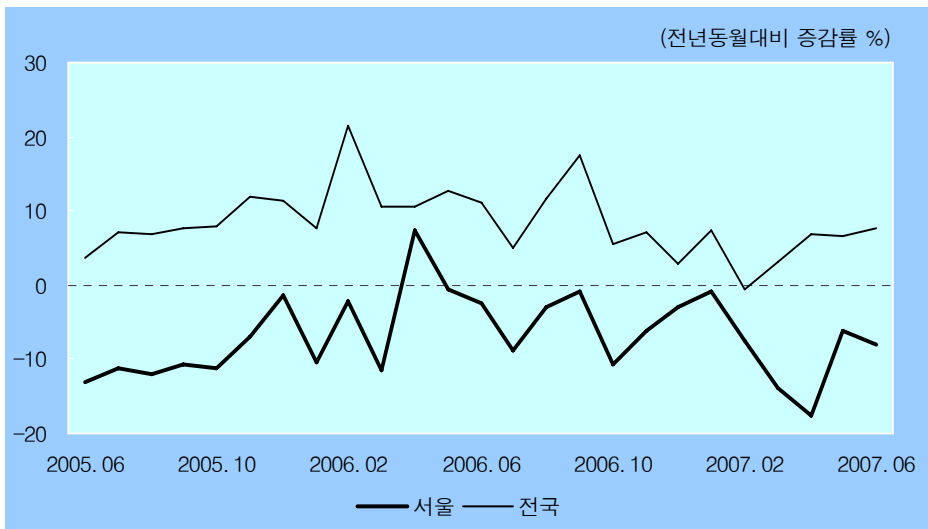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11.2 (1.0)	-0.6 (0.2)	3.1 (-0.3)	6.8 (3.2)	6.7 (1.0)	7.6 (1.9)
	서울 (제조업)	-2.5 (-2.5)	-7.6 (-13.5)	-14.7 (9.8)	-18.8 (7.7)	-6.7 (-8.3)	-8.3 (-4.2)
	중공업	-9.7 (5.8)	-16.7 (-19.3)	-25.5 (2.9)	-44.1 (29.2)	-10.3 (-16.3)	-13.3 (2.7)
	경공업	1.0 (-5.5)	-4.0 (-11.4)	-10.6 (12.3)	-0.8 (1.0)	-5.3 (-5.1)	-6.3 (-6.6)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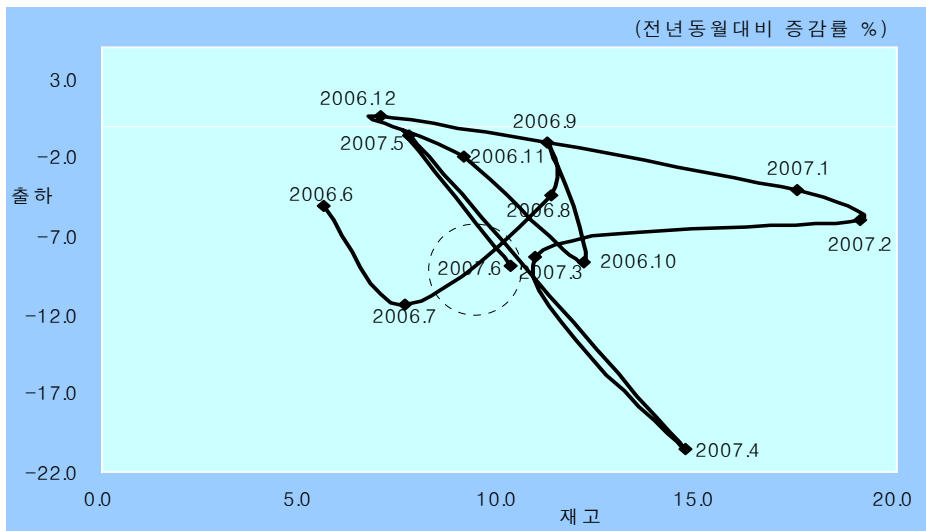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세 확대, 재고 증가세 확대
 - 6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8.9% 감소하고, 재고는 10.3%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재고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불규칙적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하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는 상향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소폭 상승

- 6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0.6%로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203.1%로, 전월 보다 큰 폭(31.1%p)으로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크게(63.6%p) 상승한 217.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도 17.9%p 상승한 196.6%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재고율	전국	94.8	94.8	94.2	93.0	90.8	90.6
	서울 (제조업)	167.9	200.3	172.7	186.8	172.0	203.1
	중공업	122.3	233.9	169.8	226.6	153.8	217.4
	경공업	184.7	187.6	172.2	172.4	178.7	196.6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6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확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확대

- 6월 3조 6,55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됨
- 백화점은 컴퓨터, 의복,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함
- 대형마트는 가전제품 의복,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함
- 2/4분기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분기대비 5.2%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상승

- 6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28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6.2%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13.2%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3%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소비심리 회복추세에 따른 명품관련 상품 판매 증가 및 패션관련 상품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신규사업체 증가 및 여름 가전, 의류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함
- 2/4분기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분기대비 11.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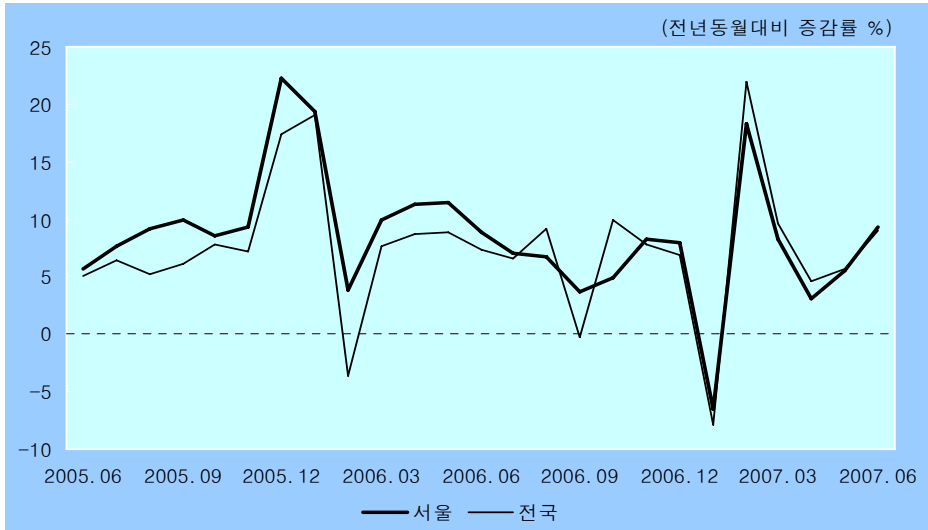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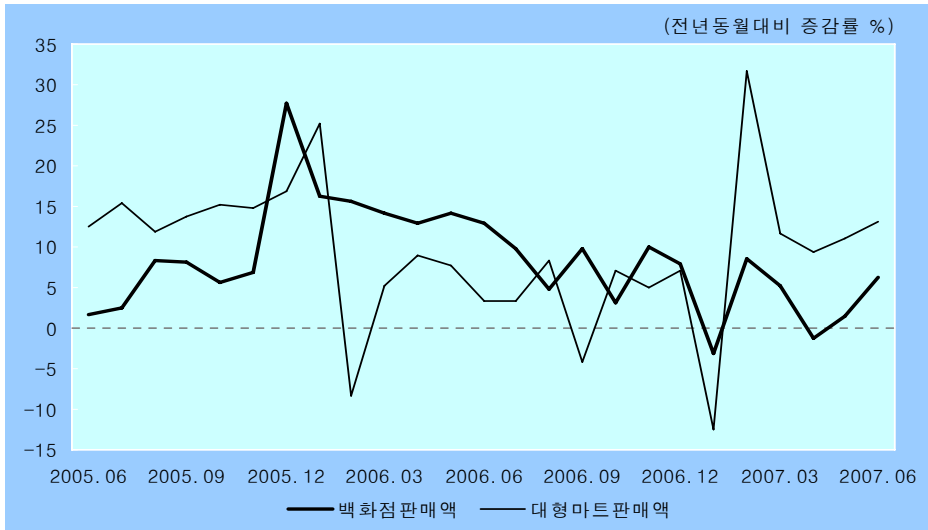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판매액	전국	3,125.8 (7.3)	3,939.6 (21.9)	3,887.1 (9.7)	3,838.0 (4.6)	3,921.4 (5.6)	3,655.5 (9.0)
	서울	1,034.2 (8.8)	1,271.1 (18.3)	1,313.0 (8.2)	1,311.6 (3.1)	1,322.4 (5.5)	1,228.9 (9.3)
	백화점	548.9 (13.0)	661.0 (8.6)	739.4 (5.2)	750.8 (-1.3)	733.9 (1.5)	658.3 (6.2)
	대형마트 (할인점)	458.6 (3.3)	568.2 (31.7)	525.2 (11.7)	524.6 (9.4)	552.2 (11.1)	536.3 (13.2)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7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4%로 소폭 상승함
- 장마의 영향으로 채소류, 과일류의 출회 감소로 농축수산물이 상승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올랐고, 도시가스, 열차료 등 공공서비스와 단체여행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이 상승한데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로 소폭 상승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보다 0.1%p 낮은 수준으로, 지난 5년간 7월 평균 물가상승률(0.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로 보면 가구집기및가사용품(-0.2%), 기타잡비(-0.2%)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식품및비주류음료(1.3%), 교통(0.6%), 피복및신발(0.4%), 교양및오락(0.4%), 주거및수도광열(0.2%), 통신(0.1%)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 모두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5% 상승하고, 서비스부문은 0.2%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6% 상승하고, 공업제품은 가공식품류와 석유류, 기타 공업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집세는 전세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하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는 콘도미니엄이용료, 자동차학원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함

■ 신선식품지수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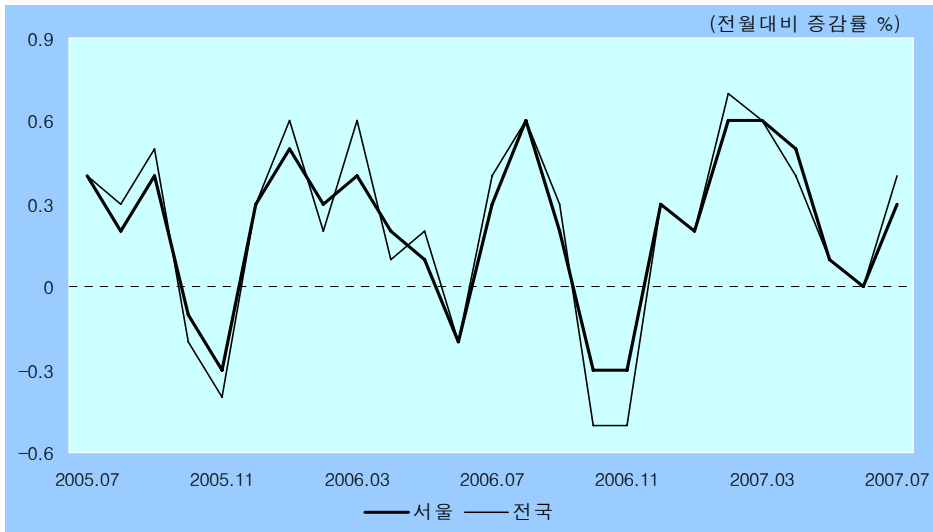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지난달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7% 상승하여 지난달(-3.2%)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전국	0.4 (2.4)	0.7 (2.2)	0.6 (2.2)	0.4 (2.5)	0.1 (2.3)	0.0 (2.5)	0.4 (2.5)	
	서울	0.3 (2.7)	0.6 (2.1)	0.6 (2.3)	0.5 (2.6)	0.1 (2.5)	0.0 (2.8)	0.3 (2.7)	
	상품 성질별	상품	0.2 (1.4)	1.1 (1.3)	0.1 (1.7)	0.5 (1.9)	0.2 (1.5)	-0.2 (1.8)	0.5 (2.1)
		서비스	0.4 (2.6)	0.4 (2.5)	0.9 (2.6)	0.4 (2.9)	0.0 (2.4)	0.0 (3.1)	0.2 (2.9)
	생활물가	0.3 (3.0)	0.8 (2.2)	1.1 (2.6)	0.7 (3.2)	0.2 (3.5)	-0.1 (3.5)	0.4 (3.6)	
	신선식품	1.0 (-2.9)	6.8 (4.0)	-1.8 (2.6)	0.7 (3.4)	-2.7 (4.6)	-3.2 (7.4)	3.7 (10.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세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7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39만1천명) 증가한 3,920만5천명이
며, 경제활동인구는 1.1%(27만5천명) 증가한 2,454만5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남자는 74.8%로 전년
동월과 같고, 여자는 51.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7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고, 경제활동인
구는 51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한 63.4%로 남자는 75.6%, 여자는 51.8%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8 (-0.2)	0.7 (-0.2)	0.8 (1.8)	1.0 (1.6)	1.1 (0.8)	1.1 (0.2)	1.1 (-0.5)
	서울	-0.3 (-0.3)	-1.1 (-1.0)	-1.1 (0.3)	0.0 (1.1)	0.7 (0.5)	0.2 (-0.3)	1.0 (0.5)
	남자	0.2 (0.4)	-0.4 (-0.2)	-1.2 (0.4)	0.0 (0.8)	0.4 (0.2)	0.8 (-0.1)	1.1 (0.7)
	여자	-0.9 (-1.3)	-1.9 (-2.1)	-0.8 (0.2)	0.0 (1.5)	0.1 (0.8)	-0.6 (-0.7)	0.9 (0.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5	60.4	61.4	62.3	62.7	62.8	62.6
	서울	62.9	62.1	62.3	63.0	63.3	63.1	63.4
	남자	74.9	74.2	74.5	75.0	75.2	75.1	75.6
	여자	51.5	50.8	50.9	51.7	52.1	51.8	51.8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7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전국의 취업자는 2,37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30만3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0%(1,376만8천명), 여자는 42.0%(998만2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고, 여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5.7%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0.9%)에 비해 감소폭이 0.4%p 증가한 -1.3%이며, 고령층은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7월 서울의 취업자는 498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7만3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는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5%(286만9천명), 여자는 42.5%(211만9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5%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5%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0% 증가하고 여자는 2.1%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는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임
- 전체 취업자의 21.9%(109만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여 전국의 감소세와 상반됨
- 전체 취업자의 15.0%(75만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하여 전월(5.1%)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확대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5.7%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12.3%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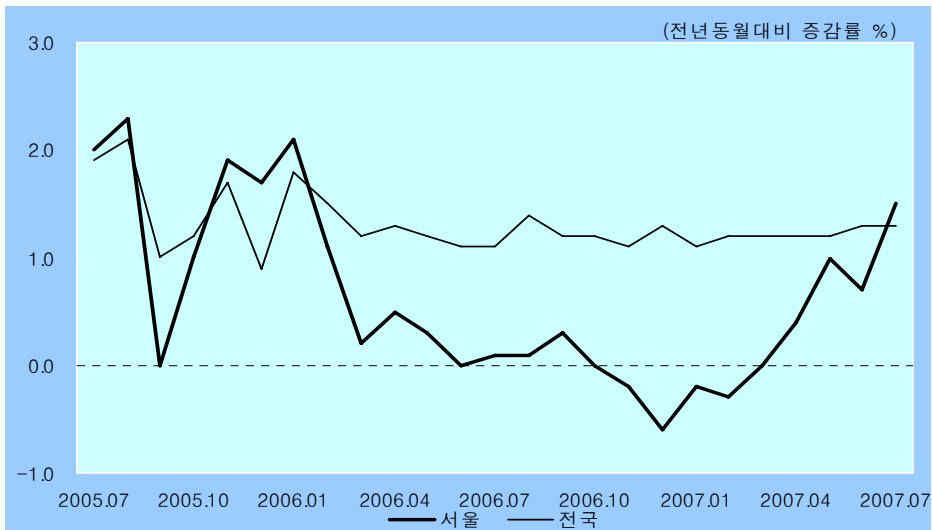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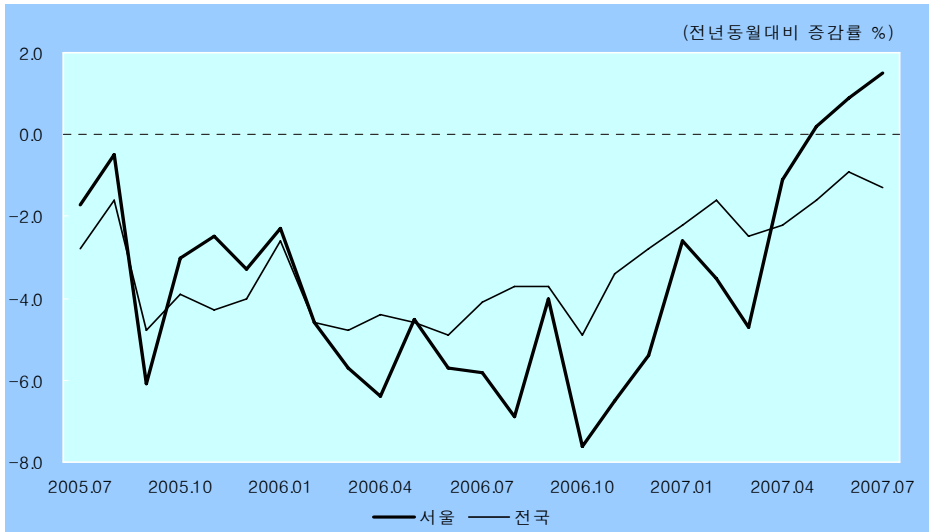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	전국	1.1 (-0.2)	1.2 (-0.2)	1.2 (2.0)	1.2 (1.7)	1.2 (1.0)	1.3 (0.2)	1.3 (-0.3)	
	서울	0.1 (-0.5)	-0.3 (-0.9)	0.0 (0.8)	0.4 (1.2)	1.0 (0.8)	0.7 (-0.1)	1.5 (0.3)	
		남자	0.7 (0.4)	0.2 (0.5)	-0.4 (0.8)	0.2 (0.6)	0.6 (0.9)	1.0 (-0.1)	1.0 (0.4)
		여자	-0.7 (-1.7)	-1.0 (-2.7)	0.5 (0.7)	0.8 (1.9)	1.6 (0.6)	0.3 (-0.2)	2.1 (0.2)
	청년층 취업자	전국	-4.1 (3.3)	-1.6 (-2.1)	-2.5 (-2.2)	-2.2 (0.6)	-1.6 (1.2)	-0.9 (-0.1)	-1.3 (2.9)
서울	-5.8 (1.1)	-3.5 (-2.9)	-4.7 (-2.1)	-1.1 (2.5)	0.2 (1.7)	0.9 (-0.3)	1.5 (1.7)		
고령층 취업자	전국	3.8 (-2.3)	6.4 (1.0)	5.6 (7.2)	6.6 (5.9)	6.6 (3.3)	5.6 (0.2)	5.7 (-2.2)	
	서울	4.6 (-2.5)	6.3 (-0.6)	6.1 (2.2)	7.7 (3.2)	8.0 (0.9)	5.1 (-1.3)	9.4 (1.5)	
		55-59세	2.0 (-1.9)	-2.3 (-1.0)	1.6 (3.0)	1.9 (2.3)	4.2 (2.2)	0.4 (-3.2)	5.7 (3.4)
		60세 이상	6.9 (-3.0)	13.8 (-0.2)	9.9 (1.7)	12.7 (3.6)	11.2 (0.0)	8.7 (0.0)	12.3 (0.2)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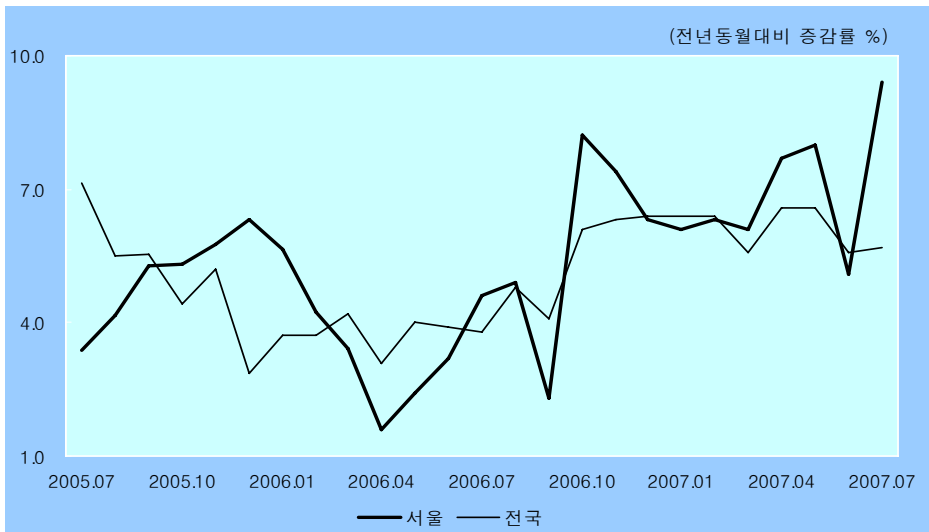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

- 7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9.0%)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3%), 제조업(14.0%),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6%)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하여 전월(9.2%)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3.3%), 건설업(2.5%)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7.6%,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0%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5.0%)에 비해 2.6%p 확대됨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 7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4%)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5%), 서비스·판매 종사자(24.3%), 사무종사자(15.8%) 순임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7%)와 서비스·판매 종사자(-2.6%)를 제외하고, 사무종사자(3.1%)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6.2%)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지난달(-8.8%)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며, 지난달에 비해 감소폭(6.2%p)이 대폭 축소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 7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0% (368만8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0%(129만9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0.1%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5만9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1.1%(1만4천명) 증가하여 비임금근로자 수의 2006년 2월 이후 이어지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2.7%)와 임시근로자(-7.2%)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4.5% 감소한 반면, 자영업주는 2.1% 증가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별	· 제조업	-4.9 (2.4)	-8.5 (-3.2)	-11.1 (-1.0)	-6.2 (2.3)	-7.0 (-0.5)	-5.0 (-0.4)	-7.6 (-0.4)
	SOC 및 기타서비스업	1.1 (-0.9)	1.2 (-0.5)	2.1 (1.0)	1.7 (1.0)	2.6 (1.1)	1.9 (-0.1)	3.2 (0.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 (-1.6)	5.3 (0.2)	6.7 (1.7)	6.0 (1.5)	8.8 (1.7)	9.2 (1.7)	10.0 (0.8)
	· 도소매·음식숙박	1.3 (-0.4)	-3.4 (-2.0)	-2.2 (0.4)	-4.0 (-1.8)	-5.1 (-0.3)	-6.9 (-0.2)	-5.0 (1.7)
	· 전기·운수·통신·금융	1.5 (1.6)	0.9 (-0.8)	-1.3 (-4.2)	3.4 (5.6)	4.1 (3.0)	4.3 (-1.9)	3.3 (0.7)
	· 건설업	-2.2 (-2.6)	0.2 (2.2)	1.5 (7.1)	0.4 (2.2)	0.5 (0.1)	-2.0 (-5.2)	2.5 (1.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8 (-0.5)	4.1 (0.7)	1.9 (0.0)	1.7 (1.5)	2.8 (0.5)	7.1 (4.0)	6.2 (-1.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0.7 (2.1)	-0.6 (-2.2)	-1.4 (1.3)	-1.7 (2.2)	-1.5 (1.1)	-0.3 (-2.9)	-0.7 (1.7)
	서비스·판매종사자	-1.4 (-4.5)	-5.1 (-3.7)	-1.2 (2.9)	-0.7 (-1.0)	0.7 (0.1)	-8.8 (-2.1)	-2.6 (2.0)
	사무종사자	1.0 (2.2)	-0.6 (-2.2)	0.4 (-1.9)	4.0 (2.2)	2.9 (1.8)	6.7 (-0.1)	3.1 (-1.3)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1.6 (1.8)	1.8 (-1.0)	1.0 (0.2)	1.8 (1.7)	1.9 (0.9)	2.7 (-0.6)	1.6 (0.7)
	비임금근로자	-3.9 (-6.3)	-5.8 (-0.6)	-2.6 (2.4)	-3.3 (-0.3)	-1.2 (0.5)	-4.5 (1.0)	1.1 (-0.8)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7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

- 7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2%(실업자 79만5천명)로 전월과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실업자 51만8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7%(실업자 27만7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2.0%, 고졸은 4.0%, 대졸 이상은 3.1%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상승

- 7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8%(실업자 19만8천명)임
- 7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6%p)는 4월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지난 5년간 7월 평균 실업률 4.4% 보다 0.6%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1%p 증가한 반면, 여자는 1.1%p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2%p 높은 반면에, 여자는 0.2%p 낮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0.2%p 증가한 1.4%p로, 5월이후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3.4	3.7	3.5	3.4	3.2	3.2	3.2	
서울	4.2	4.6	4.2	4.1	3.8	3.6	3.8	
성 별	남자	4.3	5.0	4.6	4.8	4.1	4.1	4.4
	여자	4.1	4.0	3.6	3.2	3.4	2.9	3.0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6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1조9,016억 원으로 공공부문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민간 및 민자부문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8.8%의 높은 증가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6.6%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 19.4%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70.3% 증가하고, 건축부문은 19.5%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소폭 감소

- 6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2,1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4%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8.6%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및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95.4%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증가하는 한편, 신규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0.9%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7.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15.1% 감소하였으며, 2.1%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301.5% 증가함

〈표〉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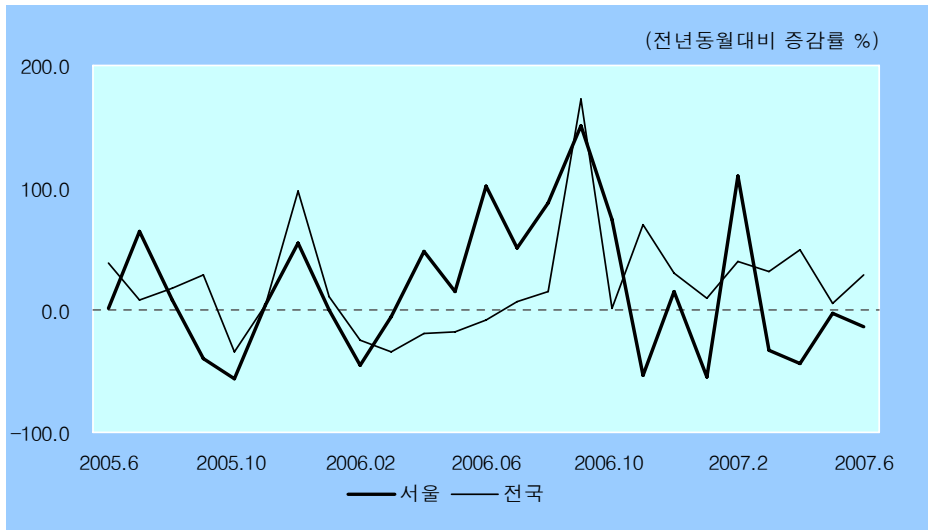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9,239.1	6,325.5	7,941.9	7,840.6	7,096.3	11,901.6	28.8	(67.7)	
서울	2,599.9	859.3	765.1	981.2	1,277.0	2,215.8	-13.4	(73.5)	
발주 자별	공공	1,282.0	99.5	162.0	178.7	15.8	18.6	-95.4	(17.7)
	민간	4,357.1	759.8	603.1	802.5	1,171.3	2,139.8	-0.9	(82.7)
공종 별	건축	5,616.2	815.4	654.1	939.8	1,233.6	2,161.9	-15.1	(75.3)
	토목	21.9	36.5	103.2	35.4	36.5	46.5	301.5	(27.4)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7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341,892㎡로 전년동월대비 43.2% 감소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13.0%)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아파트(92.7%)와 단독(19.2%)의 신축허가면적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7월 대비 82.2%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기타(94.7%)만 증가하고, 상업용(26.1%), 공업용(2.3%), 문교 및 사회(64.3%)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0.3% 감소함
- 2007년 7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중구(925,318㎡)로 상점이 702,664㎡를 차지함
- 아파트 신축허가면적은 영등포구가 68,46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m²,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서울	5,880,253	463,808	306,466	5,219,668	4,508,340	3,341,892	-43.2 (-25.9)	
주거용	소계	1,461,972	140,262	95,525	304,444	174,993	260,659	-82.2 (49.0)
	단독	20,119	5,631	5,046	15,399	14,868	16,260	-19.2 (9.4)
	연립	125,380	96,209	68,718	91,656	114,876	141,705	13.0 (23.4)
	아파트	1,355,214	38,421	8,706	196,135	44,101	98,276	-92.7 (122.8)
비주거용	소계	4,418,281	323,546	210,940	4,915,224	4,333,347	3,081,233	-30.3 (-28.9)
	상업	3,339,462	160,171	103,336	4,298,279	3,903,277	2,468,278	-26.1 (-36.8)
	공업	111,987	125,957	84,899	89,650	1,638	109,385	-2.3 (6578.0)
	문교/사회	875,807	28,292	22,557	465,762	167,979	312,635	-64.3 (86.1)
	기타	90,903	9,126	148	46,974	260,453	176,968	94.7 (-32.1)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7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소폭(0.3%) 상승함
- 중부세 기준일 전후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도세가 감소하고 방학이사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함
- 주택 유형별로는 그동안 주춤하던 아파트가 전월대비 소폭(0.2%)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7%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상승폭이 6월에 비해 0.2%p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2%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과 동일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5% 상승하고, 강남은 0.1% 상승하여 강북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강남은 4월 이후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섬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0.9%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7%, 아파트는 0.3% 상승을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전월대비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0.2	0.4	0.2	0.1	0.0	0.1	0.3	(9.4)	
서울	0.3	0.4	0.4	0.2	0.1	0.3	0.5	(15.1)	
아파트	0.3	0.3	0.2	0.0	-0.2	0.1	0.3	(16.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3	0.6	0.6	0.5	0.1	0.2	0.5	(20.8)
	강남	0.3	0.2	0.2	-0.3	-0.4	-0.1	0.1	(13.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도봉구, 동대문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7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5%)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5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7%)을 상회함
- 도봉구(1.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동대문구(1.1%), 성북구(1.1%), 중랑구(0.9%), 강북구(0.8%), 은평구(0.7%), 용산구(0.6%)의 순임
- 반면 마포구(0.4%), 중구(0.4%), 서대문구(0.3%), 성동구(0.3%), 광진구(0.1%), 종로구(0.0%)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강동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4개 구가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상회함
- 구로구(0.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강동구(0.7%), 금천구(0.6%), 영등포구(0.6%)의 순임
- 동작구(0.2%), 송파구(0.2%), 양천구(0.2%)는 지난달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소폭(0.2%p) 상승함
- 강북은 0.5% 상승하고, 강남은 0.1% 상승하여 지난달까지 이어지던 강남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섬
- 구별로 보면 강북구(1.2%), 도봉구(1.1%), 동대문구(0.8%), 서대문구(0.8%), 중랑구(0.7%), 중구(0.7%), 노원구(0.5%), 구로구(0.5%), 성북구(0.5%), 용산구(0.4%)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반면 서초구(-0.1%)와 광진구(-0.2%)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1,742만원으로 전월(0.2%)보다 상승폭이 소폭 상승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09만원), 서초구(2758만원), 송파구(2541만원), 용산구(2334만원), 양천구(2129만원), 강동구(1917만원), 광진구(1823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노원구(995만원), 도봉구(947만원), 강북구(935만원), 은평구(924만원), 중랑구(913만원), 금천구(890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7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세

- 7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보합세를 나타냄
-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함
- 전세가격 증감률의 장기추이를 보면 7월은 장마철이 마무리되고 방학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6월의 하락세가 보합세로 돌아섬
- 올해 7월은 22년 장기평균인 0.0%를 소폭(0.1%p) 상회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7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비 상승폭이 전월(0.1%)보다 소폭 확대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2% 상승한 반면, 강남은 0.0%로 보합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은 0.7%, 단독주택은 0.3% 상승하고, 아파트는 0.1% 상승하여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연립주택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전월대비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0.1	0.3	0.4	0.4	0.1	0.0	0.1	(5.4)	
서울	0.2	0.4	0.6	0.5	0.1	0.1	0.3	(8.0)	
아파트	0.2	0.4	0.6	0.4	-0.1	0.0	0.1	(7.8)	
지역별	강북	0.3	0.4	1.0	0.8	0.1	0.1	0.2	(10.0)
주택전세	강남	0.1	0.4	0.3	0.2	-0.2	-0.2	0.0	(6.3)

주: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동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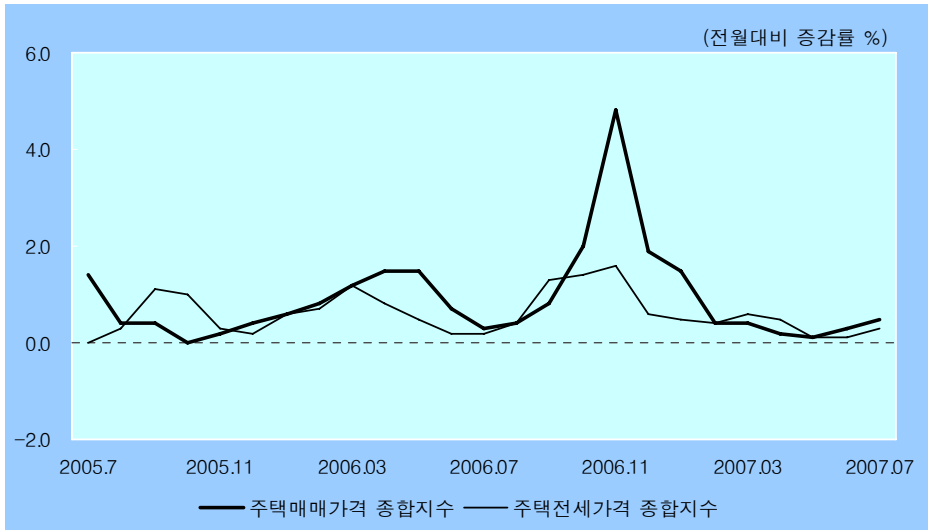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1.1%)와 도봉구(1.0%)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은평구(0.6%), 구로구(0.6%), 동작구(0.6%), 광진구(0.5%), 관악구(0.5%), 성북구(0.4%)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중구(-0.1%), 강동구(-0.1%), 강서구(-0.1%), 서초구(-0.1%)는 하락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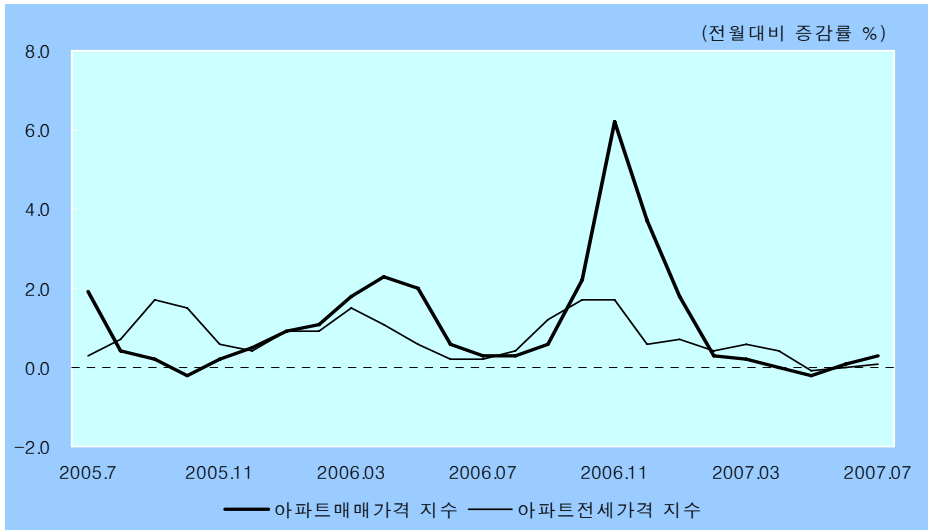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보합세를 보임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2% 상승한 반면, 강남은 0.0% 로 전월과 동일함
- 구별로는 동작구(0.8%)와 종로구(0.6%)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도봉구(0.4%), 서대문구(0.4%), 양천구(0.4%), 동대문구(0.3%), 성동구(0.3%), 은평구(0.3%), 중랑구(0.3%), 구로구(0.3%), 노원구(0.2%), 용산구(0.2%), 관악구(0.2%), 금천구(0.2%), 강북구(0.1%)에서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보이고, 광진구(0.0%), 마포구(0.0%), 송파구(0.0%)에서는 보합을 보임
- 반면 강남구(-0.2%), 강서구(-0.2%), 성북구(-0.3%), 중구(-0.3%), 강동구(-0.3%), 설초구(-0.3%), 영등포구(-0.3%)는 전월 대비 하락함
- 7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한 621만원으로 강남구(981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28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에 비해 미미한 하락

- 2007년 7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0%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5%를 11.5%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1.4%p, 2월: 11.5%p, 3월: 11.4%, 4월: 11.5%, 5월: 11.4%p, 6월: 11.5%)는 1월 이후 보합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5%, 강남은 37.6% 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1월들어 50%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7월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1월 처음 30% 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7%)에 비해 소폭(0.1%p) 하락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7월중 KOSPI 지수 2,000p 돌파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 후 반락

- 7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04%p 하락한 5.22%로, 5.4%대까지 상승 후 반락함(6월말 5.26% → 7.16일 5.42% → 7월말 5.22%)
- 이는 정책금리 추가인상 기대, 단기 외화차입 규제 방침 등으로 월중반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미국 금리 하락, 주가급락,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 CD(91일) 유통수익률 상당폭 상승

- 7월말 CD 유통수익률은 콜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한 5.10%를 나타냄
- 7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76%로, 전월대비 0.24%p 상승함
- 7월 12일 한국은행은 콜금리 운용목표를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에 4.5%에서 4.75% 상향 조정함

■ 장·단기 금리차 축소

- 7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12%p로, 전월에 비하여 상당폭(-0.14%p) 축소됨
-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고, 콜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가 덩달아 오르며 나타난 현상임

■ KOSPI 지수 2,000p 돌파

- 7월중 KOSPI 지수는 국내 경기회복의 가시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 등에 힘입어 2,000p를 돌파함(7.25일, 2004.2p)
- 외국인의 지속적인 차익실현 매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으로 월 후반부 조정을 보이며 1,933.3p로 마감됨
- KOSDAQ 지수도 월 후반부 조정을 보이며 800p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소폭 반등하여 811.5p로 마감됨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 7월중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및 역외매도 영향으로 919원대로 소폭 하락함
- 월 초중반 수출기업 네고자금과 역외매도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인 913원대(7.25일)까지 하락하였으나, 월 중반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과 월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증대 등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강세 현상이 나타나며 919원대로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 리	국고채(3년)	4.83	4.76	5.05	5.17	5.26	5.22	-0.04
	CD(91일물)	4.64	4.94	5.00	5.06	5.00	5.10	0.1
	콜금리(1일)	4.22	4.61	4.88	4.56	4.52	4.76	0.24
	장단기 금리차 ¹⁾	0.19	-0.18	0.05	0.11	0.26	0.12	-0.14
주 가	KOSPI ²⁾	1,297.8	1,452.6	1,542.2	1,700.9	1,743.6	1,933.3	189.7
	KOSDAQ ²⁾	557.7	649.0	675.9	747.9	778.7	811.5	32.8
환율 (W/US\$) ²⁾	955.2	940.9	930.8	929.9	923.8	919.3	919.3	-4.5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7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중심으로 1.8조원 증가함
-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취급액 축소, 주택신보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조원 증가에 그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1.6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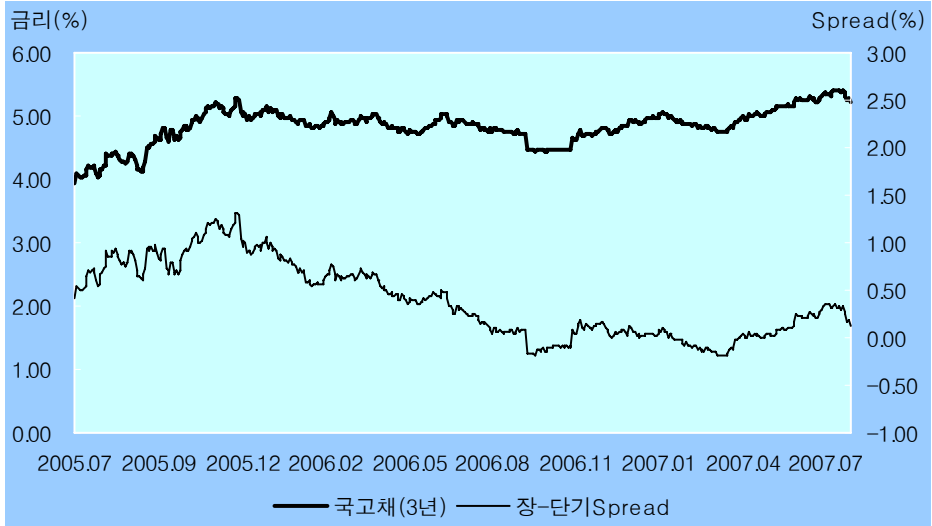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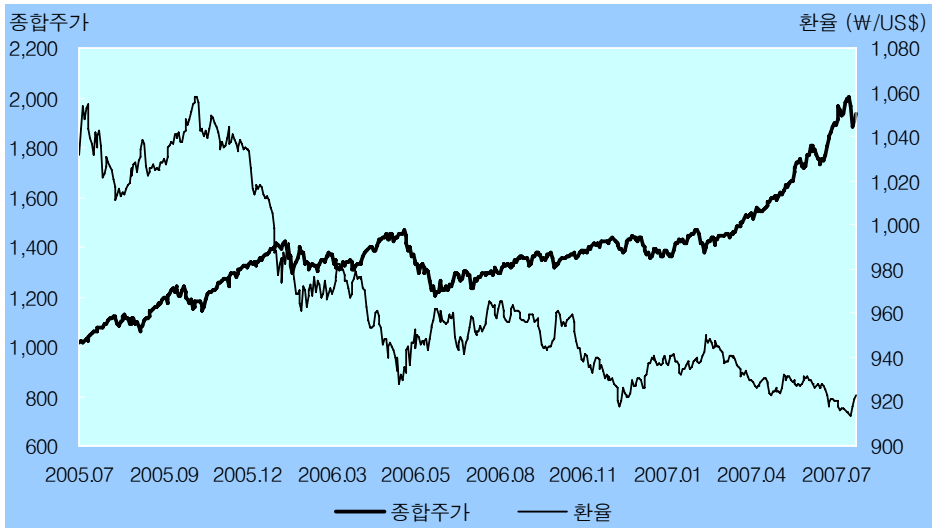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7월	4월	5월	6월	7월	2007년		
							6월	7월	
가계대출 ¹⁾	40.9	2.5	1.4	0.2	0.8	1.8	350.4	352.2	0.51
주택담보대출 ²⁾	26.8	2.3	0.0	-1.2	0.7	0.1	217.8	217.9	0.0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0.0	1.3	1.4	0.0	1.6	130.9	132.5	1.2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6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확대

- 6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82조 6,745억원으로, 전월대비 15조 3,55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5월 증가액: 11조 4,139억원)이 확대됨
- 6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82조 1,187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4,930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5조 4,606억원)보다 확대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6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예금은행	652,960.9	717,066.5	728,294.8	735,674.4	747,823.0	12,148.6
	비은행기관	200,297.1	223,550.9	227,610.5	231,644.8	234,851.5	3,206.7
	합계	853,258.0	940,617.4	955,905.3	967,319.2	982,674.5	15,355.3
서울	예금은행	274,191.2	295,805.6	301,454.8	304,590.3	310,800.2	6,209.9
	비은행기관	53,798.5	65,573.2	67,710.3	70,035.4	71,318.5	1,283.1
	합계	327,989.7	361,378.8	369,165.1	374,625.7	382,118.7	7,493.0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6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감소

- 6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6.0%로 전월에 비해 0.1%p 감소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6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82.5	84.1	85.0	84.6	84.4	-0.2
서울	55.8	55.6	56.4	56.1	56.0	-0.1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7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감소

- 7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596개로 전월대비 2.8% 감소함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제조업(-11.7%)과 서비스업(-0.9%)이 감소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4.5%)은 증가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5.6%, 제조업 19.5%, 건설 및 설비업 14.2%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4%(-43개) 감소한 1,738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7.8%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제조업(-19.0%)과 서비스업(-0.4%)이 감소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은 3.9% 증가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0.4%(-5개) 감소하여 1,408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보면 운수업(13.2%)만 증가하고 통신업(-50.0%), 숙박 및 음식점업(-25.0%), 부동산 및 임대업(-16.9%) 등 대부분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79.5%)과 비슷한 79.1%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824	4,576	4,511	4,727	4,596	-131	-2.8	772	20.2
서울	1,454	1,764	1,692	1,781	1,738	-43	-2.4	284	19.5
서비스업	1,175	1,495	1,421	1,413	1,408	-5	-0.4	233	19.8
제조업	140	140	138	205	166	-39	-19.0	26	18.6
건설 및 설비업	138	128	132	155	161	6	3.9	23	16.7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7월 서울 부도업체수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 하락

- 7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4개로, 전월(173개) 보다 41개 증가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와 비슷함
- 업종별로 제조업(25개)과 건설 및 설비업(5개), 서비스업(9개) 모두 증가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7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1월 이후 변동 없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3개) 보다 2개 감소한 61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2개 감소하였으나 지방은 43개(110개→153개)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9.9%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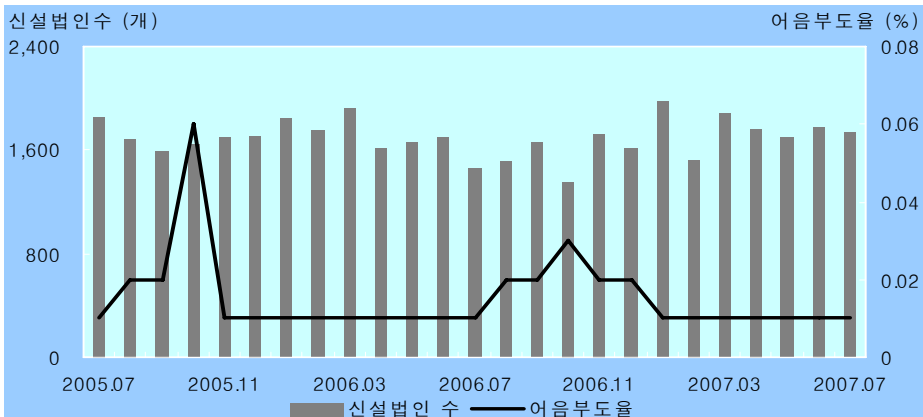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7월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2	-0.01	-33.3	0	0.0
	부도업체 수	211	169	197	173	214	41	23.7	3	1.4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1	0.01	0	0.0	0	0.0
	부도업체 수	71	52	55	63	61	-2	-3.2	-10	-14.1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7월 신용보증 공급 전월수준 유지

■ 건당평균금액 낮은 수준 유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7월중 2,002건, 36,270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0.3%, 금액 4.6% 감소함
- 전체적인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영향으로 건당평균금액은 계속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662	1,863	3,254	3,111	2,009	2,002	-7	-0.3	1,340	202.4
금액	17,184	55,239	71,217	57,591	38,007	36,270	-1,737	-4.6	19,086	111.1
건당평균금액	26.0	29.7	21.9	18.5	18.9	18.1	-0.8	-4.2	-7.9	-30.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 증가세 회복

- 7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 증가세 주춤하던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4.9%p 증가하여 38.4%를 나타낸 반면,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은 증가세 주춤하며 2.4%p 감소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01	739	384	434	244	2,002
비율	10.0	36.9	19.2	21.7	12.2	100
금액	4,749	13,928	5,583	8,460	3,550	36,270
비율	13.1	38.4	15.4	23.3	9.8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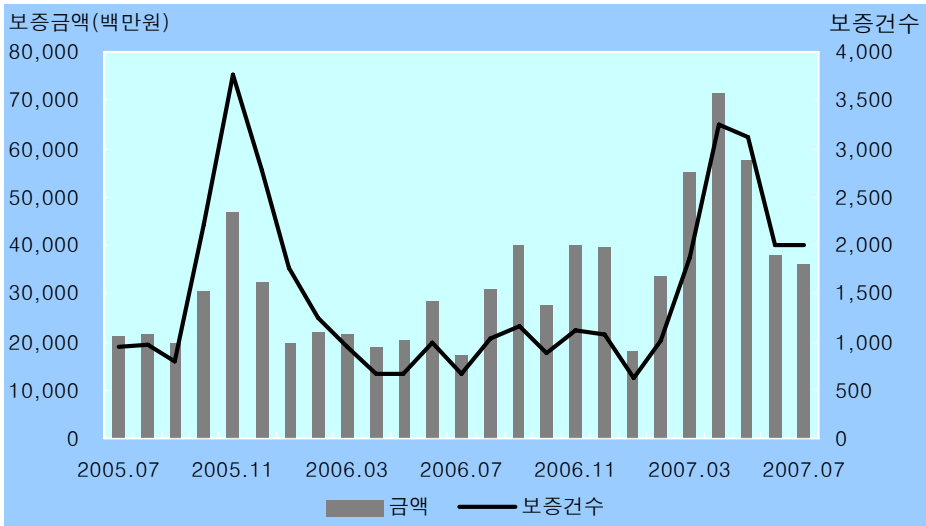
- 전월 회복세를 보이던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다시 4.4%p 감소하며 11.3%를 나타낸 반면, 전월 증가세 주춤하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4.3%p 증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5	2007.06	2007.07	전월대비 증감
소상공인	건수	2,921	1,873	1,893	20
	비율	93.9	93.2	94.6	1.4
	금액	45,366	29,375	29,601	226
	비율	78.8	77.3	81.6	4.3
소기업	건수	132	91	73	-18
	비율	4.2	4.5	3.6	-0.9
	금액	7,214	5,960	4,108	-1,852
	비율	12.5	15.7	11.3	-4.4
중기업	건수	58	45	36	-9
	비율	1.9	2.3	1.8	-0.5
	금액	5,011	2,672	2,561	-111
	비율	8.7	7.0	7.1	0.1
합계	건수	3,111	2,009	2,002	-7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7,591	38,007	36,270	-1,737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7월 서울 수출 증가세 소폭 상승, 수입 증가세 다소 둔화

■ 전국 수출 큰 폭으로 증가

- 7월 전국의 수출은 해외수요 호조와 전년동월의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17.9%)으로 증가하여 303억 5,830만불을 나타냄
-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인 중화학공업품(수출비중 82.9%)이 북미, 유럽 등 수출지역 다변화로 자동차가 67.8%, 유럽국가들의 WCDMA 휴대폰 수요증가로 무선통신기기가 30.4%,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2.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전국 수입 증가세 확대

- 7월 전국의 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및 소비심리 회복 등에 따라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고루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한 292억 4,510만불로 나타남
- 용도별로는 소비재가 29.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원자재(16.2%), 자본재(7.7%)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 서울 수출 증가세 소폭 확대

- 7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한 23억 2,510만불로, 증가세가 소폭 상승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50.5%), 플라스틱제품(36.5%), 컴퓨터(15.1%) 등이 대부분이 증가하고 의류(-16.3%), 무선통신기기(-15.0%) 등은 감소함
- 국가별로는 중국(21.1%), 홍콩(8.9%), 인도(157.3%) 등이 증가하고, 미국(-6.7%), 일본(-12.6%) 등은 감소함

■ 서울 수입 증가세 다소 둔화

- 7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한 56억 250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항공기 및 부품(-18.2%), 석유제품(-7.2%) 등을 제외한 농약 및 의약품(61.2%), 의류(29.3%), 자동차(25.9%) 등 대부분은 증가함
- 국가별로는 중국(25.0%), 미국(11.0%), 일본(6.0%), 독일(31.2%)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5,744.4	30,386	29,53.9	31,044.7	32,017.3	30,358.3	4,613.9	17.9	-1,659.0	-5.2
	수입	25,549.7	29,233	29,486.6	29,756.4	28,455.0	29,245.1	3,695.4	14.5	790.1	2.8
서울	수출	2,124.4	2,327	2,244.8	2,285.7	2,373.0	2,325.1	200.7	9.4	-47.9	-2.0
	수입	4,793.4	5,475	5,902.0	5,980.2	5,769.8	5,602.5	809.1	16.9	-167.3	-2.9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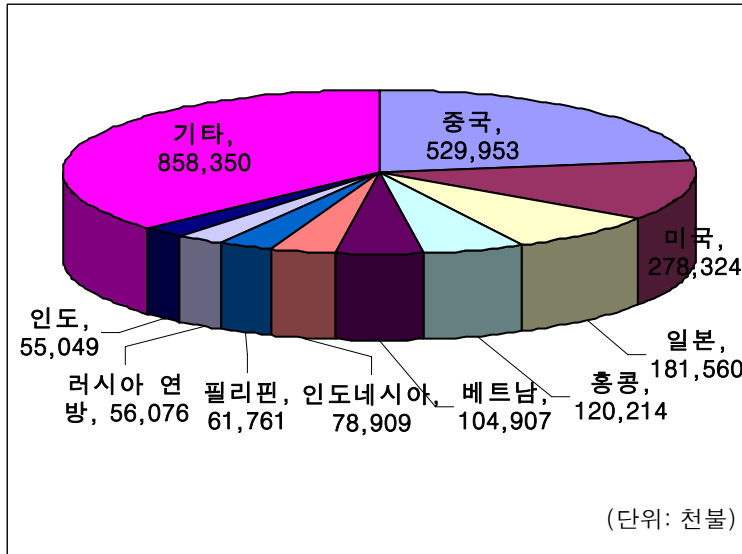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7월		2006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325,103	9.4	2,124,431	9.3
1	편직물	191,719	9.7	174,823	21.5
2	반도체	181,126	25	144,850	20.8
3	의류	120,057	-16.3	143,470	-1.1
4	합성수지	107,169	10.8	96,710	36.8
5	고무제품	97,965	9.4	89,557	28.2
6	자동차부품	85,488	50.5	56,786	2.3
7	인조장섬유직물	75,876	1.3	74,886	7.8
8	컴퓨터	70,390	15.1	61,180	-29.3
9	플라스틱 제품	68,755	36.5	50,355	-11.2
10	무선통신기기	64,375	-15	75,735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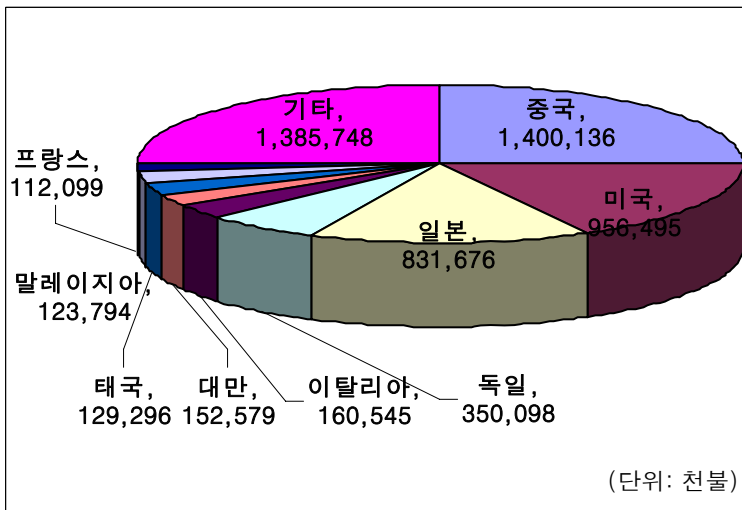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7월		2006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602,466	16.9	4,793,391	15.1
1	반도체	391,997	5.7	370,836	11.2
2	컴퓨터	384,626	2.9	373,732	-14.6
3	의류	265,608	29.3	205,486	20.4
4	자동차	201,932	25.9	160,379	-29.4
5	항공기및부품	185,272	-18.2	226,361	-0.7
6	석유제품	134,926	-7.2	145,440	16.4
7	농약및의약품	123,284	61.2	76,472	3.9
8	육류	115,920	14.6	101,146	13.2
9	무선통신기기	109,888	21	90,794	17
10	유선통신기기	108,406	12.1	96,663	22.3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